

거리의 '막가파 의사들' ▶6

지역 유통업계 착한 브랜드가 뜬다 ▶9

리틀 태극전사들 16강 보인다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516호 1판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음력 5월 18일)

광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기지개'

(30개 구역)

(18개 아파트)

시행인가 7, 지정 18, 추진구역 22곳

3~4곳 내년초 착공...주택경기 관건



63년만에 다시 부른 전우가

25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 63주년 기념식'에서 광주·전남지역 참전유공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전우가를 제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결의안' 처리는 불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에 관한 법안(이하 전두환 추징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구역/면적 m²)

구분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합계	30/ 2,863,768	18/ 829,535
공사중	-	1/ 194,492
사업시행인가	6/ 269,098	1/ 94,132
정비구역지정	15/ 1,823,422	3/ 156,150
추진준비	9/ 771,248	13/ 384,761

■ 지자체별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합계	48	14	8	14	8	4
재개발	30	14	3	3	7	3
재건축	18	0	5	11	1	1

3구역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마륵치평구역은 SK건설이 각각 재개발 사업으로 경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곳은 내년 초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 주택 경기가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민선 5기 들어 광주시가 도시의 과에 새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 구도심에 인구를 유입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다 새정부에서도 신규 SOC건설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들도 신규 아파트 건축보다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이유로 풀이된다.

◇ 주택재개발= 모두 30개 구역에 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동구 학동 3구역(6만216㎡)과 서구 마륵치평구역(3만1932㎡)이 마지막 행정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 준비에 들어갔다. 학동

구역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마륵치평구역은 SK건설이 각각 재개발 사업으로 경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곳은 내년 초 아파트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 주택 경기가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는 민선 5기 들어 광주시가 도시의

과에 새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기존 아

파트를 재건축, 구도심에 인구를 유입

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다 새정부

에서도 신규 SOC건설이나 대규모 택

지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

형건설사들도 신규 아파트 건축보다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

고 있는 것도 이유로 풀이된다.

◇ 주택재개발= 모두 30개 구역에

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동

구 학동 3구역(6만216㎡)과 서구 마

륵치평구역(3만1932㎡)이 마지막 행

정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 준비에 들어갔다. 학동

15개소 그리고 사업을 준비중인 곳이 9개소에 이른다. 국내 최대 규모로 기록될 서구 광천동 구 송원대학 일대 (42만6380㎡) 재개발 사업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다.

◇ 주택재건축= 총 18개 아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서구 화정주공아파트는 이미 아파트 건립 공사가 시작됐으며 조합원 분양을 끝내고 일반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 중이며,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시설 부지로 활용될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아파트는 오는 8월께 조합설립총회를 열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동구의 계림7구역과 계림5~2구역 그리고 북구의 문화동 각화구역과 풍향2구역 등 4곳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풍향2구역은 금호가 시공사를 맡고 있으며 조간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이

르면 내년 봄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계림7구역의 경우 평수를 줄이는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해 사업을 본격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인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곳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 주택 정책은 도시 외곽이 확장되는 신규택지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낙후한 기존 도심을 재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낙후한 구도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과 함께 구도심을 살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추징시효 10년으로 연장

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사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면에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58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6월 30일(일) 오후 2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58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칭정,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12, 13면>

| 주최 | 61회 광주일보

| 협찬 | SAMSUNG

여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극한대치

국정원 국조 처리 합의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기사 3~4면>

새누리당은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NLL) 포기 발언이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여권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측 정보위원회인 유인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지키기 위해 저쪽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중 나온 발언만 갖고 (새누리당이) 왜곡을 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도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 속에 각각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정국 경색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관련, 여야는 이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6월 24일(월)~28일(금)

입학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부설대학원 062-605-1114

</